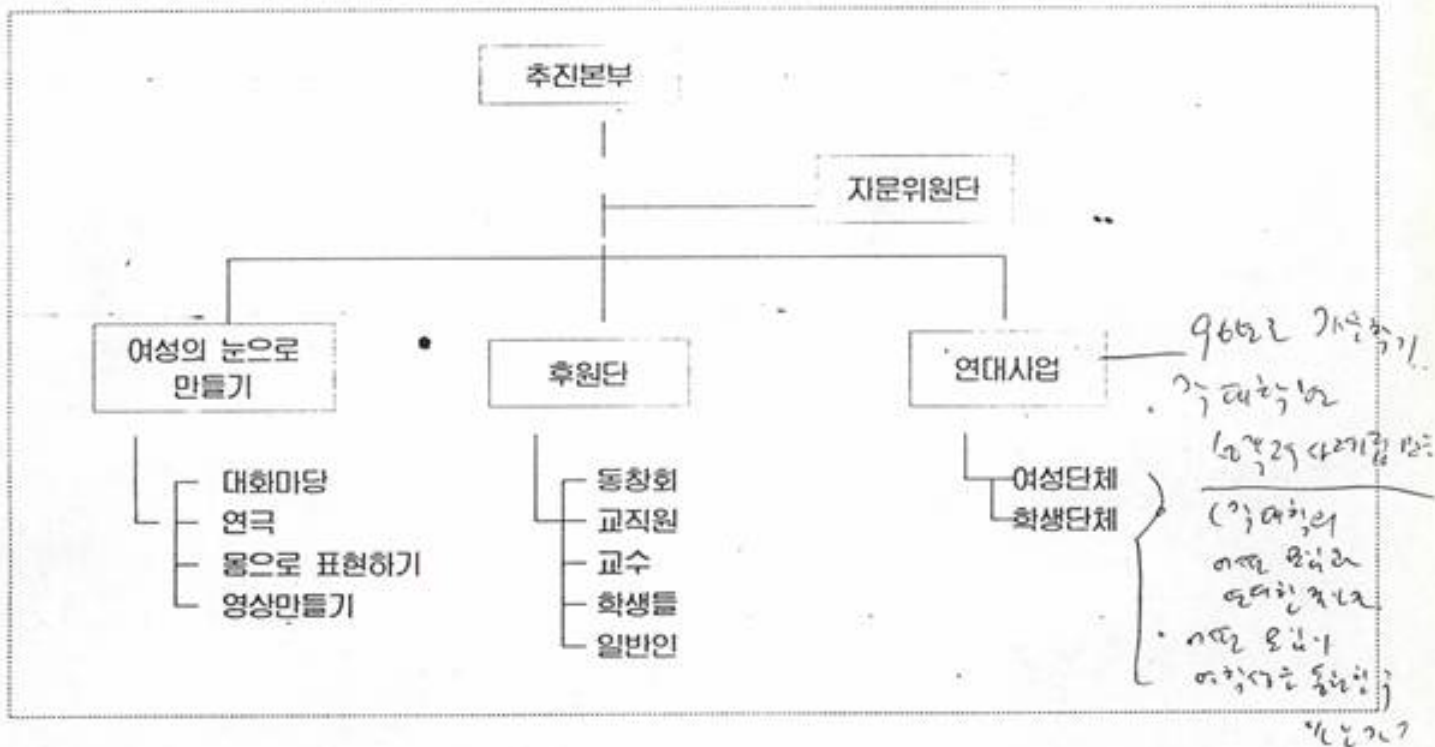


(가칭)민족고대생들의 집단난동근절 추진본부

1. 체계



2. 왜 민족고대생들의 집단난동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본부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화대동제에서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이 10여년간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올해 이화여대는 고대생들의 행동을 집단적인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대동제 마지막날 토론회를 진행하고 대동제 기간동안 왜 고대생들의 행동이 성폭력인가에 대한 자보를 전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대생들의 난동은 이화광장에서 시작되었고 행사장까지 난입하여 한 학우가 심하게 다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대 총학생회는 이대와 고려대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했고 언론에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고대는 물론이고 언론 및 많은 사람들이 이대가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에 대해서 성폭력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단지 이 문제를 이대와 고대문제로만 국한시켜 사고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성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 광의의 개념으로 성폭력을 사고해야 하며, 그 속에서 민족고대생들의 집단난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

력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고대와 이대사이에서 생긴 일이 아니라 성폭력사건임을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민족고대생들의 집단난동근절 추진본부를 제안한다.

3. 체계의 구성에 대하여

1) 자문위원단

여성학과와 사회학과 교수님등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과 사회 인사들로 구성한다. 자문위원단은 이 문제를 담론화하는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는 단위이다.

2) 여성의 눈으로 만들기

이 문제를 다양한 기제로 표현하는 단위이다. 여성주의 담론은 개개인의 생활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고로 이것이 단순히 아름다운 논리체계를 넘어선 사회의 인식변환을 유도하는 장기적 운동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기재를 통한 설득과정이 필수적이다.

① 대화마당(포럼)

여성주의적으로 진보적일 것이라는 대학사회조차 그 인식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 또한 이론적 수준에 비해 생활에서의 적응력이 매우 낮다는 것이 고대난동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일방적 강의가 아닌 상호토론을 통한 담론확산을 목표로 하는 포럼을 기획한다.

'생활속의 성담론과 관련하여' - 대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속에서 부딪치는 성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틀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경험을 갖게한다.

주제선정과 진행은 이대 여성학과 김은실교수님과 여성학과 대학원선배님들이 담당하시기로 했다.

먼저, 이대에서 진행하고, 이 형식을 다른 학교에서 할 것을 제안한다.

② 연극

- 전문연극 : 전문 연극인의 섭외를 통한 '여성주의 연극'이 기획중이다. 구체적 사건(고대생 난동)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성폭력적 한국사회를 고발하는 내용이다. 각 대학중심의 공연이 될 것이다.(가안)

③ 몸으로 표현하기(퍼포먼스 및 즉흥극)

상황극, 토론극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각 장소에 있는 무작위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즉흥극이다. 이는 자신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부딪쳐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사건관련 모든 행사에서 진행할 것이다.

④ 영상만들기

사건의 개요에서 진행, 그리고 이후의 방향성까지를 제시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기획하고있다.

3) 두원단

- 재정지원 ; 위의 많은 기획행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사건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이다. 단순모금, 자료집 판매, 이벤트 행사, 기획상품제작이 이루어질 것이다.

- 사회의 의식화 ; 아직까지 '고대생 난동사건'이 양교간의 사건으로 이해되거나, '성폭력'규정에 있어서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른 감이 있다. 이에 대책위는 재정지원을 요청하면서 관련 담론들을 제공하여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후원자에게 정확한 분석의 내용을 제공하려고 한다.

특히, 30대 주부의 경우 의식의 단초는 있으나 그것을 내용으로 끌어올릴 소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금운동은 그 끈을 잇는 기재가 될 것이다.

5. 연대사업

이번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단위와 연대를 고민하는 단위이다.

이대총학생회와 여성위원회가 포괄할 수 있는 단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 여성으로서의 시각과 여성의 삶을 고민하는 단위에서 함께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여성단체 : 각 여성단체 내의 소식지와 활동을 통해 회원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여성

단체에서도 사회속의 성폭력과 함께 고대생의 집단난동을 담론화 할 수 있다.

② **학생단체** : 학생단체에는 남녀공학대학의 총여학생회와 각 여대의 총학생회가 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동아리와 '뿌리내림'과 같은 학생단위들이 있다.

이제 대학도 성폭력에 있어서 安全地帶가 아니다. 학생단체의 경우 이 문제를 케이스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외에 학내의 성인식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설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③ **여성학 강사** : 많은 학교에서 여성학강좌를 개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 대학내의 성인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번 민족고대생들의 집단난동을 하나의 케이스로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수업교재로는 비디오와 자료집을 제공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대총학생회와 여성위원회에서 인자를 제공할 수 있다. ID E

- 이대총학생회 연락처는 360.3279-3281/ 하이텔과 천리안 ID EWHASA
- 이대총학생회의 계좌번호는 308-06-470038(조흥은행) 입니다.
- 민족고대생의 집단난동 담당자는
전현경(문화기획국장/012.870.9876)과 조혜련(여성위원장/015.323.3738)입니다.

후원단이 되어주세요.

앞으로 진행될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해 주십시오.

후원단 활동

① 후원기금 / ② 관련행사 참가

오늘 토론회 내용이 첨가된 '고대난동 사건 자료집'을 제작중입니다. 후원단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후원단이 되겠습니다.

이름 ;

하는 일 ;

연락처

- 전화번호 ;

- 통신 ID ;

- 주소 ;

우리끼리 하는 얘기

바로 작년에 이화 출신 연극인들이 모여 '이연회'라는 동창 모임을 만들었다. 라거 연극계에 잠깐 발을 들여놓은 인연으로 나는 여기에 자동 가입이 되었는데 근세, '김활란 총장 추모 공연'을 한다는 것이다. 웬 김활란? '김활란=친일, 친일=김활란'이 아니던가. 비폭력적 반항을 결심하고 무관심하려고 애쓰다가 선배님들이 강요에 가까운 권유를 하는 관계로 그 분의 평전을 읽게 되었다.

한 가지 내가 참 부끄럽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친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는 우리 학교 역사에 대해 지독할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고 여성 위인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취급하고 싶어 하는 역사 풍토라도 맞물려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나는 지금도 김활란 총장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고 지면도 부족하니까 친일 여부는 여기서 논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감동적인 몇몇 일화 중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그 분이 총장으로 재임할 때 일이다. 교수 회의에서 남자 교직원들이 여자 강사가 어깨를 노출한 옷차림을 한 데 대해 문제 삼았다고 한다. 그러자 김 총장은 "남자가 숙녀의 옷차림에 대해 알가알부할 수 없다"며 한 마디로 잘라버렸다.

김 총장 자신은 언제나 한복 차림이었다고 하므로 그것은 자기 변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성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자매애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태도는 책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하다.

4년 내내 우리 학교 친구들이 여성으로서 느끼는 정체성, 이화인으로서 느끼는 자긍심의 실체 등등에 대해 고민스러웠던 나에게 이것은 반가운 이야기이다. 잔소리도 용서하지 않았던 우리 조상에 비해 구타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반응해 온 것이 사실 우리 모습이 아니었던가, 왜 우리에게 남자 친구가 이토록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반성을 하게 해준다.

고대생 남자친구가 맡긴 가방을 들고 학교 친구인 지킴이들이 두들겨 맞는 상황을 방관하다가 지킴이들이 그 가방을 압수해 가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해서 돌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화인들을 좀 만났었다. 강의 방문하는 자리에서도 고대인들에게 수적으로 뒤졌지 하는 식의 자괴감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 전적인 아니더라도 한 구석에 드는 마음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아직 동네방네 소문은 안 났지만 고대생 난동을 둘러싸고 혁명라도 같은 움직임이 계속 일고 있다. 또하나의 문화 월례 논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가진 후 여성학과에서도 같은 주제로 논문 발표를 한 것이다.

또 성 정치 모임과 같이 위험한(?) 조직들이 이 문제가 왜 성폭력 문제인지에 조
목조목 따져보는 대화 마당을 열어 보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바깥이 이렇게 소란한 데 비해서 이하는 너무 고요하다. 피해자가 너무
얌전하니까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해결해보려는 사람들조차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가해자인 고대생의 심리를 분석하고 사회적 캠페인을 벌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정작 이화인이 의견을
모으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모두 거품같은 담론에 불과할 것이다. 이 일이 이화인
개인과 전체에게 각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데 이제껏 장애로 작용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내부
문제도 따끔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

사실은 지금이 폭풍 전야가 아닐까. 방학이라는 휴지기를 맛았을 뿐 언제 뺨
하고 터질지 모르는 화산일지도 모른다. 누가 진짜 호랑이 만큼 무섭고, 진짜 정
의로운지 보여주기 위해 서서히 끓어오르는 우리 외침이 전 이학적 폭발로 나타나
고대인들의 잘못된 성 인식에 화상을 입힐 것이다. 생각이 짧은 관계로 혹시 반
성을 못 하더라도 “앗, 뜨거!”하면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 보자.

요컨대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갖는 의미는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여성적인 측면에
서, 애교적 차원에서 모두 모두 중요하다. 우리는 잃어버린 학교 조상의 자부심을
발굴·복원하는 사람들이고 뚝뚝 뭉친 여성의 힘을 이 세상에 펼쳐 보여주는 여자들
이며 이화인임을 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되살리는 일꾼들이다.

나는 신나서 미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우리는 고대의 난동을 근절하
는 것은 물론, 대학가의 모든 성폭력·성희롱·성차별에 썩기를 박을 수 있는 진짜
용감하고 힘센 여자들이 아닐까. 그동안 우리 본래 모습에 대한 기억을 잠깐 잃
어 버렸을 뿐이다.